남북 장관급 회담 연기와 남북 관계 전망

□ **5차 남북 장관급 회담의 의의와 예상 의제**

- 지난 3월 13일 북측의 갑작스런 불참 통보로 연기된 이번 회담은 당초 향후 남북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음
- 남북한은 이번 회담을 통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남북 경협, 군사적 긴장 완화, 이산가족 문제, 사회 문화 교류 등에 대해 상호간 다양한 의견과 요구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었음

□ **남북 장관급 회담의 연기 원인 분석**

- (미국의 대북 인식에 대한 반발) 이번 한미 정상 회담을 통해 미국의 대북한 인식이 예상보다 강경하다는 점을 확인한 북한의 의도적인 반발
- (정세 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 한미 정상 회담 이후 등장한 새로운 외생 변수에 대한 북한 내부의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한미 공조와 남측 태도에 대한 불만) 남측이 동족과의 공조 대신 외세인 미국과 공조를 다짐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평화 선언 대신 불가침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힌 점 등이 북측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보고 있음

□ **향후 예상 돌출 변수와 남북 관계**

- 최근 한미 정상 회담을 전후로 나타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국내외 돌출 변수는 남북 관계 진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예상 돌출 변수는 크게 북한 요인, 미국 요인, 현 정부 요인, 국내 요인 등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한반도의 해빙 무드 조성이라는 기본틀은 유지될 것임

□ **남북 관계 전망**

- 남북장관급회담 연기 이후 남북 관계는 전반적으로 답보 상태가 예상되나, 북한의 내부 사정과 대북 정책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본적 태도 및 미국의 대북 정책이 아직 숙성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볼 때, 향후 남북 관계 진전이 악화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은 낮음

남북 장관급 회담 연기와 남북 관계 전망

5차 남북 장관급 회담의 연기 파장

- 지난 3월 13일 북측의 갑작스런 불참 통보로 회담이 연기됨으로써 현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의 순조로운 진행에 장애가 발생함은 물론, 향후 남북 관계 진전이 순조롭지 않음을 예고하고 있음
  - · 우리 정부는 한미 정상 회담을 기초로 이번 회담에서 남북한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남북한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최대의 중점을 둘 예정이었음
  - · 또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관련 사항에 대해 합의를 기대했던 남측으로서는 향후 남북 관계 진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게 됨
  - · 당초 이번 회담에서 남북한 상호간에 다양한 의견과 요구가 제시될 것으로 전망되어, 향후 남북 관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관측되어 왔음

당초 예상되었던 주요 사안과 남북한 입장	
주요 사안	예상 협의 내용에 대한 남북한 입장
김정일 답방	- 남측: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상반기에 성사되어 이를 통해 평화 체제 구축 방안 논의 계획 - 북측: 원칙적 수준에서 언급할 가능성
남북 경협	- 남측: 경의선 및 도로 공사 합의, 해운 합의, 개성공단 특구 지정, 금강산 관광 대가 인하 등 - 북측: 전력의 조기 지원, 남한 정부의 금강산 사업 지원 문제 등
군사적 긴장 완화	- 남측: 제2차 국방장관회담 재개와 군사공동위 설치 등 실질적 조치 요구 - 북측: 남측이 거론한 주적론 폐기 요구
이산가족 문제	- 교환 방문 정례화,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 확대, 판문점과 금강산에 면회소 설치, 영상 상봉 추진 등
사회 문화 교류	- 6.15, 8.15 공동 행사 개최, 체육 교류를 비롯한 각종 문화 행사 개최 및 관련 인원의 교류 등

남북장관급회담의 연기 원인 분석

- (미국의 대북 인식에 대한 반발)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대북 인식이

예상보다 강경하다는 점을 확인한 북한의 의도적인 반발

· 한미 정상 회담에서 부시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고,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북한 정권 붕괴 가능성을 언급함

· 북측의 입장에서 볼 때, 김정일 위원장에 대한 미국측의 부정적 평가와 북한 체제 붕괴에 대한 언급에 대해 미국에 경고하려는 의도가 있음

· 지난 13일 조선 중앙 방송에서 "미국의 새 행정부가 선임 정권(클린턴 정부)의 공약을 외면하고 자신들을 압살하려 한다"고 미국에 대한 불만을 나타냄

- **(정세 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 한미정상회담 이후 등장한 새로운 외생 변수에 대한 북한 내부의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한미 정상 회담이후 부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예상외로 강경한 것으로 감지되었고, 이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남북장 관급 회담 연기라는 방침을 결정

· 북한은 과거 예정된 회담을 여러 차례 연기 혹은 결렬시킨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불만 표출 및 경고, 내부 조정을 위한 시간벌기, 상대방 의도 파악, 보다 유리한 조건 확보, 주도권 장악 등이 있음

· 아울러 미국이 남한과의 화해·협력을 가로막는 압살 책동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켜 내부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음

- **(한미 공조와 남측 태도에 대한 불만) 남측이 동족과의 공조 대신 외세인 미국과 공조를 다짐하고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 평화선언 대신 불가침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힌 점 등이 북측의 입장과 배치된다고 보고 있음**

· 한미정상회담 시 한·미·일 3국 공조를 강조한 점이 6.15 선언 제 1항의 자주적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 남측에 항의하려는 뜻이 담겨져 있음

· 특히, 북측은 한미 정상 회담 시 남측이 미국의 입장에 맞추어 대북 투명성 검증이나, 포괄적 상호주의를 언급하며 미국 편향 자세로 인식할 수도 있음

향후 예상 돌출 변수와 남북 관계

- **최근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나타나고 있거나 향후 예상되는 국내외 돌출 변수는 남북 관계 진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나, 동북아의 안정과 남북 관계의 기본틀을 깨지 않으려는 남북한 및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돌출 변수로 인한 극단적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향후 주요 요인별 발생 가능한 돌출 변수	
환경 요인	발생 가능한 돌출 변수
북한 요인	미국의 부정적 시각에 따른 북측의 반발과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불만, 장관급회담의 연기와 이에 따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 연기 가능성 및 금강산 관광에 대한 지원 요구 등은 향후 남북 관계 발전을 지연시킬 수 있음
미국 요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북한 체제에 대한 부시 정부의 부정적인 시각, 제네바 합의의 수정 시사, 국가 미사일 방어 체제(NMD) 논란에 대한 불만 등은 북미 관계 진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며, 나아가 남북 관계 진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현 정부 요인	관련 부처간의 조율 미흡, 통일외교안보팀의 대북 정책 추진의 역량에 대한 의구심, 대북 정책 및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관련된 대미 관계 불협화음 발생 등이 표면화 가능성
국내 요인	우선 야당이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 요구 및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한 비판이 점증하고 있고, 외교안보팀에 대한 문책 요구가 있음. 아울러 국내 보수 계층의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 등 여론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남북 관계 전망

- **남북 장관급 회담 연기 이후 남북 관계는 전반적으로 답보 상태가 예상되나, 북한의 내부 사정에서 볼 때, 남북 관계 진전이 악화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은 낮음**
  - 남북 관계에 있어 북한의 기본 태도는 화해 분위기 조성을 통한 실리 획득에 있음. 즉 정치·군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기본 조건만을 충족시키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 일부 지역의 개방 등을 통한 외화 획득에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은 회담 연기이후 계속된 미국에 대한 비난을 지난 20일부터 중지한 것과 같이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이번 회담 연기와 별개로 예정대로 상반기에 성사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예상외로 남북 관계 호전을 위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임

김정균 수석연구위원 jkkim@hri.co.kr ☎ 3669-4081